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글로벌 해양강국!
		배포일	2019. 4. 25.(목)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이형민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팀		• ☎ (044)200-5310, 5315 • 팀장 황인서, 차장 이구성 • ☎ (051)400-7961, 7980	
보도일시		2019년 4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들어졌다

- 4. 25. 백령도에서 인공쉼터 조성 기념 점박이물범 보호 다짐대회 개최 -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가 만들어지면서, 백령도가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을 기념하며 4월 25일(목) 백령도 고봉포항에서 점박이물범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한 민·관·군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 인공쉼터 조성은 2018년 11월 완료되었으며, 점박이물범이 중국 랴오둥만에서 활동을 마치고 봄철 백령도로 회유하는 시기에 맞추어 현장 기념행사 개최

이번 대회에서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점박이물범이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먹이자원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백령면 진촌어촌계, 백령중·고등학교 물범동아리, 인천 녹색연합,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지역주민과 시민 단체, 군부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점박이물범 보호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랴오둥만 유빙(流水)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내는 해양포유류이다. 해양수산부가 2007년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이자 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서해 개체군) 약 8,000마리(1930년대) → 약 2,300마리(1980년대) → 1,000마리 미만(2000년대)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에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동안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던 물범바위는 자리가 좁아 물범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물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사례에 착안하여,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백령도 인근 하늬
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섬터(350m², 길이20m × 폭17.5m)를 조성하였다.

인공섬터의 수면아래쪽은 어초의 기능도 담당하여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어획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이 인공섬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섬터
주변의 소음 방지 등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점박이물범 인공섬터 조성을
시작으로 인간과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점박이물범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히
쉬는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길 기대하며, 서식지 관리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행사계획

- 일시 : 2019. 4. 25.(목) 14:00 ~ 15:00 (※ 만조 10:20, 간조 16:51)
- 행사예정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고봉포항
- 주요 내용 : 유공자 포상(장관 표창 및 해양환경공단 감사패 전달),
물범 먹이자원 방류 등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옹진군) / 해양환경공단
- 참석대상 : 약 60여명(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고래연구센터,
인천시(옹진군, 백령면), 어촌계장, 제6해병여단, 백령도 유관단체
(해경 등),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 및 지역주민·백령중고교 등)

○ 행사 진행일정

구분	소요시간	진행내용	비고
■ 기념행사	14:00~14:02(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03(01')	▪ 내빈소개	사회자
	14:03~14:06(03')	▪ 경과보고	해양생태과장
	14:06~14:08(02')	▪ 유공자 표창(2명)	해양환경정책관
	14:08~14:10(02')	▪ 감사패 전달(4명)	해양환경공단이사장
	14:10~14:13(03')	▪ 기념사	해양환경정책관
	14:13~14:16(03')	▪ 축사	해양환경공단이사장
	14:16~14:19(03')	▪ 점박이물범 보호 다짐 선언	백령중·고등학교
	14:19~14:20(01')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현장행사	14:20~14:23(03')	▪ 안전교육 및 장비 착용	주요인사/기자단
	14:23~14:38(15')	▪ 이동(행사장→물범서식지)	어선 4척(기자 3척)
	14:38~14:40(02')	▪ 물범 먹이자원 방류(조피불락)	주요인사(8명)
	14:40~14:55(15')	▪ 이동(방류지→행사장)	어선 4척
	14:55~15:00(05')	▪ 폐회	해양환경정책관

백령도 점박이물범 쉼터 조성



사업개요

- **(추진배경)**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체력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인 휴식공간이 필요하나, 백령도는 서식개체수에 비해 휴식공간이 협소
- 점박이물범 국내 최대 서식지로서의 기능 유지, 어업인과 상생이 가능한 복합서식지 조성
- **(사업대상지)** 백령도 하늬바다 주변
- **(사업기간)** '18. 8. 27. ~ 11. 14.
- **(준공일)** '18. 11. 14.
- **(총사업비)** 18억원(설계비, 시공비 등)

주요공법

- **(자연석 활용)**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1m³급 자연석 활용
 - **(마루높이 차등화)** 점박이물범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마루의 높이를 4개 단계로 차등
 - **(큰돌쌓기 공법)** 큰돌쌓기 공법을 활용하여 수산자원조성에 기여
- ※ 물범 쉼터 수면 아래 바위틈은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어류의 서식처이자 해조류가 부착하는 등 어초기능 수행

추진경과



향후 계획

- 물범 쉼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백령도 점박이물범 개체수 증가여부 지속 확인
- 지역사회 연계 자율관리 기반 조성



참고 3

점박이물범 생태학적 특성

종명	점 박이 물 범
사 진	
영 명	Spotted seal
학 명	<i>Phoca largha</i>
크 기	○ 성체 : (몸길이) 수컷 1.7m, 암컷 1.6m, (체중) 80~130kg ○ 출생 시: 평균체장 80cm, 평균체중 10kg(평균수명 30~35년)
분 포	○ 황해, 동해, 오향크해,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
특 징	○ 몸 색깔 :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산재 ○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3월 중국 보하이만·랴오둥만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랴오둥만으로 이동 ○ 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 ○ 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축·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300마리로 급감하고 2000년대 이후 약 1,2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
비 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양수산부, 2007)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환경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문화재청)